

화두 공부는 거문고 줄 타듯 조화롭게 해야

선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

깊은 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 보낼 정도로 시원했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흡입해 버린다. 용문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선원사로 가면서 짙푸른 풍광에 눈이 멀고 물소리에 귀가 멀어버렸다. 마음은 잠시 세속으로부터 떠나 온 시간을 잊어버렸다.

신라 때 세워진 선원사는 고려시대 말에는 태고보우 선사가 수행했던 도량이었으며, 태조의 왕사였던 무학 선사가 말년에 이곳에서 수행했다. 또 효령대군이 원찰로 삼고 수도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애석하게도 선원사는 두 번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한 번은 일본군에 의해, 한 번은 한국전쟁 중에 소실됐다. 우여곡절 끝에 호산 스님과 사제들이 선원사를 중창했고, 의정 스님은 용문선원을 열었다. 폐허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에 대웅전과 3층 석탑을 비롯한 당우들이 귀하게만 여겨진다. 보릿밭 비비추꽃과 검자꽃빛 어로꽃, 분홍빛 봉숭아꽃이 청정한 도량을 더욱 환하게 밝히고 있다.

선원 입구에서 방문객의 발목을 잡는 벽보와 마주쳤다.

‘회색 결망, 바루 한 벌에 무명초를 꿰고 백운에 뜻을 심으며 용문산에 마음을 가두니 태고보우의 선종과 선지가 남아 죽비 삼성에 생사해탈해 일인에 법이 열리고 둔각(頓覺)에 삼라만상이 들어오더라...’

납작납작한 예서체로 정성 들여 쓴 벽보의 요지는 ‘이 도량에는 눈 푸른 남자들이 수행정진 하는 공간이니 출입을 맡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다. 글귀를 통해 선원장의 결연(決然)한 의지와 원력을 읽을 수 있었다.

다행히 삭발일이라 선원장인 월암의정(月庵義正)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2005년 조계종단에서 수행지침서인 <간화선>을 펴냈는데, 이때 전국선원수좌회를 대표하는 다섯 분의 선원장스님이 편찬위원이 됐다. 이 중 한 분이 의정 스님이시다. 스님은 선가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선방 좌복 위에서 서든 한자거를 성만했다.

스님께서 요즈음 추진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이 주축이 돼 ‘선원청규 위원회’를 5년 전에 발족했는데 의정 스님이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국의 백장 선사(百丈)가 처음으로 총림(叢林)을 만들고 총림에 맞는 ‘선원청규’를 만들었다. 중국에는 11종의 청규가, 일본에는 9종의 청규가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만든 ‘선원청규’가 없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는 천명의 대중이 산다면 천명의 대중 각자마다 맑은 소임이 다 있어야. 대중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양·교육·복지·의식·다례식 등 모든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청규에 의해 움직인다면 아주



선원청규위원회 이끌며 한국형 ‘선원청규’ 제작 “깨달음의 길 수만갈래... 혼자 못 찾아 스승 중요”

조화롭게지요. 선원청규는 수행의 모든 것을 담는 지침서이기에 한국 불교가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화합의 매개체가 되는 지침서가 없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선원청규가 나오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 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변합니다. 수행을 하면 높고 낮다, 고통과 즐거움, 피안과 차안 등 이렇게 끊임없이 돌로 나누는 이 분법(二分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어요. 손바닥의 앞뒤처럼 부처 쪽에서 보면 반야, 지혜, 열반이고

중생 쪽에서 보면 고통, 망상, 번뇌입니다. 중생과 부처,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수행을 해 초월해버리면 괴로움과 번뇌가 반야로 바뀝니다. 육조 스님은 ‘자성을 본 사람은 부처’라고 했으며, 한쪽을 보는 사람은 중생이고, 양변을 다 보는 사람은 부처라고 했어요.”

인생을 고(街)로 인식하는 것은 무명에 의한 어리석음 때문이란단다. ‘수행을 하면 한쪽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게 돼 괴로움은 물론이고 즐거움까지도 이미 초월하게 된다’면서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했다.

스님은 어떤 연유로 대학시절에 출가를 결심했는지 궁금했다.

“일찌감치 철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지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눈을 떠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 종교와 철학을 공부했는데, 불교 책을 보고 나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보였지요. 선(禪)수행을 보고는 이렇게 뛰어난 종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신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구도의 삶이 나에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스님은 선수행처럼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하고 양명한 그런 수행 방법이 타종교에는 없기 때문에 불교와의 인연을 가장 수승한 복이라 여긴다’고 했다. 수십 권의 불교 서적을 읽고 크게 발심해 의정부 포교당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은사 운경 스님을 만났고 출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의정 스님은...

1973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74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6년 해인사 강원 졸업. 인천 용화사 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안거. 이후 극락암, 송광사, 불국사, 운문암, 봉암사, 수도암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 성만. 2000년 양명선원사 용문선원을 사제스님들과 함께 복원하고 개원하면서 선원장 취임.

2005년 조계종단 수행지침서 <간화선> 편찬위원 역임. 2007년 조계종 전국선원 ‘선원청규’ 편찬위원장.

힘을 받았다.

“은사스님은 자비보살의 화현이었어요.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봉선사를 평생에 걸쳐서 복원하셨으며 군포교를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군인들 수계식과 군부대 위문 또한 많이 하셨는데, 요즈음 와서 돌아켜 보면 시대를 앞서서 볼 줄 아는 예지력을 갖추었어요. 저와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은사스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스님은 강원을 마치고 송담 스님을 존경했던 터라 인천 용화선원에 방부를 들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들어가면 2-3년씩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었다. 선수행이 너무나 좋아서 출가를 했기에 가행정진, 율행정진 등 어떤 수행도 거뜰히 다 해내었다. 의정 스님은 지금까지도 송담 스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스님은 간화선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 스승이 중요하다고 했다.

“간화선을 스승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면 열두 명이 하면 열 명은 망가집니다. 마음 깊은 수역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 또한 수역만 가진데 혼자 가면 거리가 바로 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 번도 깨달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승님은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을 두고 ‘부산 삼랑진에서 서울 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삼랑진에서 출발한 기차로 서울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구쯤 가면 책에서 본 서울처럼 느껴지겠지요. 책에서 본 대로 빌딩도 많고 사람도 많고 번쩍거리는 네온사인도 많고 해서 서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서울로 생각하기 십상이지요. 대구를 서울로 생각하고 내린 사람 또는 대전을 서울로 착각하고 내린 사람은 그것으로 공부는 끝입니다. 잘못 착각해 내리려고 할 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지요. 역사 속의 보우 스님이나 경허 스님 등 몇 분은 선지식 없이도 깨달았지만, 스승 없이 깨달은 것은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현대인들은 다른 유사 공부와 많이 때문에 또 너무 영리해서 스승 없이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유사 깨달음이 오는데 이때는 반드시 깨달음을 경험한 선지식에게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지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오니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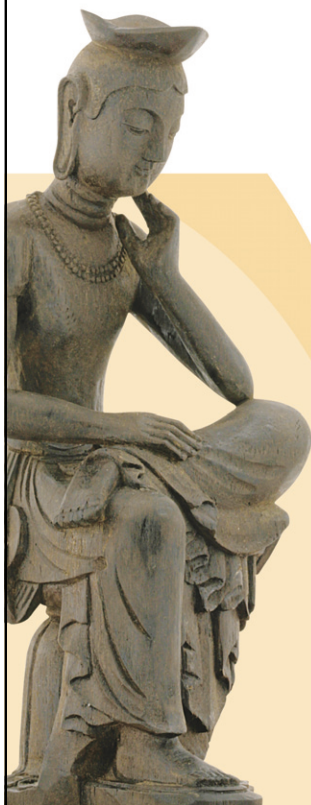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자빌딩 1505호)

감사의안내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각 사암 스님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해성불원자비회가 발족 한지도 어언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 사암스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와 놓여준 노총각 들을 대과 없이 짝을 이루어 살때, 근원들이 이루어 주었고 현재는 더욱 발전하여 여러 국가 여성들 중국, 베트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다수 국가의 아가씨와 폭 넓게 발전하게 됨은 오로지 스님들께서 다 같이 염려하여 주시는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노총각들의 삶의 보람과 굳건한 한국 인구 발전에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원 하옵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에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정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시상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